

# 철강·조선노사 임단협 난항... 산업계, 파업리스크 '촉각'

노사 갈등 심화... 협상 지지부진  
파업 확산시 산업계 전반 악영향  
"상호협력 절실, 대화의 길 찾아야"

철강·조선업계의 임금 단체 협상이 쉽게 진전되지 않아 파업 리스크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 달 31일 제 10차 교섭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복리후생 포인트 21만원 신설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복지사업기금 200억원 조성 ▲자사주 25주 지급 ▲격려금 300% 지급 ▲학자금

지원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급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을 냈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 지원금 차등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파업을 통해 생산차질을 유발하기도 했다.

조선업계의 노사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10월 3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파업 중인 노조와 회사 경비대사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해 갈등이 한층 고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0일까지 7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부터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은 기본급 10만20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을 1차 제시안으로 냈으나 노조가 반려했다. 이후 2차 협상안으로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상품권 30만원 등 조건을 상향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9800만원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내세워 사측과 큰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수주 호황이 이어

지고 있으나, 파업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조선·해양 부분의 수주 목표 72억달러(약 9조 7200억원) 중 현재까지 68억달러(약 9조 1700억원)를 수주하면서 목표치의 94.4%를 달성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산업계에서는 파업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철강사들은 업황 부진으로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노사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노조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대한전선

### 美 수주액 7200억 돌파

대한전선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연이은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한전선은 미국 현지 판매법인인 T.E.USA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케이블 장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1년간 300억 원 규모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며, 최장 3년 동안 최대 900억원의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동부에서도 약 2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두 건의 계약을 추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올해 총 수주액은 72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전선이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22년의 연간 수주액(약 4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생산 현지화를 위한 시설 투자 검토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 기아, SUV 혁신 박차... 정원정 부사장 "새로운 기준 제시"

'더 뉴 스포티지' 미디어 프리뷰  
디자인, 편의 사양 등 신차 수준 진화  
1.6 가솔린 터보모델 2836만원부터

3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의 '스포티지'가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XYZ Seoul'에서 미디어 프리뷰 행사를 열고 '더 뉴 스포티지'를 공개했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스포티지는 매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아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로 성장했다"며 "국내 95만, 글로벌 770만 고객이 찾은 기아의 얼굴이자 혁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감을 주는 디자인'이라는 기아의 브랜드 철학에 맞게 진화하는 스포티지를 통해 새로운 혁신의 장을 열겠다"며 "준중형 SUV 시장



더 뉴 스포티지. (좌)외장 (우) 실내



/기아

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내외장 디자인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신차 수준으로 진화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특화 주행 기술을 넣는 등 주행 성능도 높였다. 또 차량과 사용자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SDV 기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고객 선

호도가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특히 가솔린 1.6터보 모델에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는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HoD)와 위험 상황을 시트 진동을 통해 알려준다. 여기에 기아 모델 중 최초로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적용했다.

더 뉴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2836만원부터, 2.0 LPI 모델이 2901만원부터 시작된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315만원부터 3964만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전 모델 대비 트림에 따라 200만원 가량 인상됐다.

/양성운 기자 ysw@

## 한국타이어, 세마쇼 참가 SUV 타이어 기술력 뽐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서스포츠유틸리티차(SUV) 타이어 기술력을 과시한다.

한국타이어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8일(현지시간)까지 나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2024 세마쇼'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전용 부스를 마련해 SUV용 타이어 브랜드 '다이나프로'와 세계 최초 풀 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글로벌 전략 브랜드 '라우펜' 등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자동차 문화 선도 브랜드 '도넛 미디어'와 협업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삼성 "AI,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

## AI 포럼 2024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 등 논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석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AI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AI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5일 '삼성 AI 포럼 2024'를 개최했다. 1일차는 삼성전자 SAIT가 주관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고, 2일차는 삼성리서치가 주관해 서울 R&D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와 컴퓨터 공학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삼성 AI 포럼 2024'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어떻게 AI를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첫째 날 포럼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요슈야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교수는 "AI 안전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 대중들도 AI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르쿤 교수는 기초 강연을 통해 현재 거대언어모델(LLM)의 수준과 한계를 설명하고, 기계가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술 세션에서는 AMD CTO인 조 세프 마크리 부사장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AI'를 주제로 AMD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고 AI 플랫폼과 협업의 중요성, AMD의 강점 등을 피력했다.

둘째 날 포럼은 '모두의 일상생활을 위한 디바이스 AI'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갔다.

김대현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바이스 AI의 일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안 호록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식 그래프를 적용한 개인화 AI 서비스 기술'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맡았다. 교수는 지식 그래프 시스템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검색, 추천 등의 주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